

불서 5천여권 관리-대출 '척척'

신행연장

불광사 도서관 봉사보살 14명



컴퓨터 전산인력과 정리직업을 하고 있는 불광도서관 자원봉사자들.

'책이 없다면 지금 내 삶은...' 불광사에서 책벌레로 통하는 14명의 보살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든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도돌아보면 불법을 만난 인연도 소중하지 만 그 인연을 다듬고 깊이를 더하게 해 준 불서(佛書)야말로 가장 가까운 선지식이자 도반이었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불광사 2층에 자리 잡은 불광도서관에 모처럼 '책벌레들'이 함께 모였다. 관음재일 법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잊고 살기에는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들.

개구먼이자 왕언니로 통하는 정묘행 보살(55)이 분위기를 띄운다. "책쪽 읽었노? 요즘 우리 도서관에 벌레들이 자취를 감췄는데 어찌된 일인가."

"아따, 그러는 왕언니는 책에는 신경안쓰고 판매 하는 팔면서... 그러면 안되지~잉." 도서관장 지운행 보살(53)이 바로 맞받아쳐 책벌레들이 박장대소한다.

이들 열네 보살은 이곳 불광사 도서관의 주인공이다. 오전 오후로 나눠 한 사람씩 두 사람이 교대로 하루의 도서관 업무를 진행한다. 대출이 주요업무지만 신간구입에서부터 도서 분류, 컴퓨터 입력, 도서관자 작성, 라벨작업, 신문정리, 군법당이나 고아원 도서기증 등 모든 일을 분담해 처리한다.

경전류와 사전류를 비롯해 5천여 권이 넘는 불서와 일반도서를 관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이곳 도서관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들 열네 보살은 예의범절이 책벌레가 그 무엇보다도 항기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도서관입력이나 대출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정도 자격은 갖춰야 불광사 책벌레 대열에 갈 수 있다. 물론 자원봉사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빛바랜 책들만 도서관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다.

잔잔한 미소가 어울리는 총무 진여행 보살(42)은 컴퓨터 입력에 열중하다 "책은 많이 읽을 수 있겠다"는 질문에 "사실 많이 읽지 못해. 여기에 오면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하지만 틈틈이 보고 싶은 책을 꺼내 읽는 재미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모를걸요"라고 답한다.

왕언니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판다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도가 곧 생활인 왕언니

불서읽기 '경쟁적'

신행상담 역할도

컴퓨터 다루기 능숙

정묘행 보살은 집에서든 사찰에서든 하루 1000매는 기본이다. 또한 교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도서관에 책을 대출 받으려 온 초심자들에게 신행상담자 역할까지 하고 있다.

"정말 보람이 커요. 책도 권하고, 기도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나? 도서관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왕언니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나머지 보살들도 신행생활에 열심이기는 마찬가지다. 무애상(44)보살은 기도는 기본이고 참선을 한지도 벌써 8년째다. 자인성 보살(51)

은 1년 전부터 도서관 자원봉사를 한. 경력으로는 막내지만 독서열은 어느 누구 못지않다. 지혜안 보살(43)은 남편과 아이들을 사찰에 오게 했을 정도로, 둘째가리만큼 서러울 정도의 신심을 자랑하며, 정법월 보살(43)은 불교공부에 폭 빠져 불법의 바다를 향해중이다. 보리안 보살(42)과 보리운 보살(42)은 기도와 불서읽기에 매진하고 있다.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체도 즐겁지만 책을 권해받은 초심자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심깊은 불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행복해요."

도서관장 지운행 보살의 말에서 열네명 책벌레들의 '헌신'이 생생히 느껴진다. 마치 코끝을 스치는 진한 녹차향기처럼.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주제가 있는 법문

"깨달음에 이르는 길 출발은 보시행입니다"



정우성님
무량사 주지

"세존이시여! 같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무슨 까닭으로 누구는 얼굴도 추하고 재물도 없으며 남에게 천대를 받고 또 누구는 얼굴이 못나서 남에게 천대를 받으면서도 재물만은 풍부한 사람이 있는 등 각각 다르나이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서는 "말리 부인이여! 가슴에 생내는 마음이 있는 자는 추하고, 보시하지 않고 재물을 얻지 못해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는 여자는 남으로부터 천대를 받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내는 마음으로 질투를 버리라고 권하더라도 보시를 행하는 여인은 비록 얼굴이 추해서 천대를 받더라도 재물만은 풍족하며, 생내는 마음도 없고 보시도 행하면서 질투도 일으키지 않는 여인은 얼굴도 아름답고 재물도 풍족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것이다"

물질·몸·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자

라고 법문 했습니다.

원래 말리 부인은 사위성의 한 바라문부호의 집 허너의 신분이었습니다. 주인소유의 말리 동산을 지키면서 일하던 어느 날 그녀는 사위성 근처에서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든 단정한 사문이 걸식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집에서 얻은 자신의 마른밥을 기본 마음으로 보시하였습니다. 그 보시행은 그녀가 사위국 바사익왕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왕비가 된 말리 부인은 그 사문이 부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원정사를 찾아온 후 자신의 복덕이 보시공덕하는 마음과 실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살이 자리이다(自利利他)의 큰 행원(行願)을 닦아 마침내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는 여섯 가지 방법, 즉 육바라밀 중 제일 첫번째가 보시바라밀입니다. 가까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출발은 보시행입니다. 배푸는 행위는 자비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심은 마음으로 보시할 줄 모르면 사람은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할

지라도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비스러움은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고 만물을 낚아서 기르고 자라나게 하는 힘입니다. 자비와 보시는 동격(同格)이기 때문에 보시에 의해서 생명은 태어나는 것이고 따뜻하게 양육된다 할 것입니다.

태양이 비추는 것은 우주의 보시행이고, 물이 대지를 적셔 주는 것도 우주의 보시행입니다. 천지만물이 다 끝없이 자비로운 보시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리 부인처럼 보시행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재물없이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 곧 무재시(無財七施) 가운데 화안연색시(和顏悅色施)와 자안시(慈眼施)가 있습니다. 평화스럽고 편안한 표정 얼굴이며 기쁨에 넘치는 표정 그 자체가 훌륭한 보시이고, 자비스러운 눈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도 큰 보시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아도 훌륭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시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스럽고 기쁨에 넘치는 얼굴이요,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자비심어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돌아보아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현상계를 살아가는 욕심이 있으니 당연히 섭생을 위한 재물보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편, 몸으로(身施) 마음으로(心施) 하는 보시가 더욱 그리울 수 있습니다. 같은 절에 다니는 법우 불자들이 연대하여 양로원·고아원·재활원에 가고, 봉사를 위해 팔을 걷어부칩시다.

자비 보시행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또한 그 샘물을 흐르지는 내 갈증을 채워줄 것입니다.

신행캘린더

12월 27일(수)

■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전 조계종 교육부장 황적스님을 모시고 다보법회를 봉행한다.(02)703-0108

■ 강남구청법회 송년법회=강남구청법회는 오후 6시 봉은사 동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한다.(02)3463-0037

■ 백양사 참사람수행결사=고불총림 백양사는 31일까지 참사람수행결사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는 백양사 방장 서용승님의 법문, 화두간행, 좌선, 선종사 등의 불교교리강좌와 참선 및 겨울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061)393-7502

■ 서울청 기초교육원 수료식=서울청초등학교 기초교육원은 오후 7시 30분 서울청초등학교관에서 제 100기 수료식을 봉행한다. (02)730-9108

12월 28일(목)

■ 부산불교실업인회 송년의 밤=부산불교실업인회는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 2층 사파이어룸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051)818-9914

■ 이매주 승무공연=승무무형문화재 승무부유자인 이매주씨는 29일까지 동송동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승무공연을 펼친다.(02)396-0514

12월 30일(토)

■ 불광학생회 불광바라밀 한마당=불광학생회는 오후 2시 불광사 보광당에서 제 21회 불광 바라밀 한마당을 개최한다.(02)3431-7585

12월 31일(일)

■ 대불어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는 1월 10일자 어린이 지도자연수회에서 제 30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051)808-4569

■ 신홍사 겨울수련법회=신홍사는 1월 2일까지 대학생,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겨울수련법회를 봉행한다.(031)357-2695

■ 보림사 철야 용맹정진법회=서울 용맹보림사는 1월6일까지 선방에서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법회를 봉행한다.(02)914-6187

1월 1일(월)

■ 강남교원회 신정기도=강남교원회는 3일까지 대웅전에서 신정기도를 봉행한다.(02)539-2631~4

■ 조계사 성도재일 철야정진법회=조계사는 오후 9시부터 2일 오전 5시까지 대웅전에서 성도재일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한다.(02)720-1390

1월 2일(화)

■ 이병운 사진전=불교사진작가 이병운씨는 6일까지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불의 세계-이 뭐고'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연다.(02)2273-5480

생활속의 불교

물 같이 살자

또 한해가 저물어 간다. 흐르는 물처럼 흐르는 시간을 매듭 짓는다는 게 부질없긴 해도, 시공에 매여 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시간이 어찌 혹은 지난 해와 다름을 희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살림살이야말로 흐르는 물과 같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며 안달복달할 일도, 다가올 시간에 허황한 기대를 걸 일도 아니라는 말이다. 오직 도도한 흐름만 있을 뿐이니, 버릴 것도 답이 될 것도 없는 것이다.

결을 맺고 풀고, 한 발짝 내딛으면 뒷 발짝 없애지고 또 한 발 내딛으면 또 한 발 없애진다. 때어놓은 발자국을 아쉬워하면서 걷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놓고 간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일이 닳으면 닳지는 대로 겪으면서 흘러

간다.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그러하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사는가. 물 같은 삶은 바로보고 덧없는 삶으로 여긴다. 가능하면 내 곁에 잡아두려는 생각에 흐름을 거스른다. 재물을 쌓고 자리를 다투며, 모든 흐름이 나의 바람을 따라 좌지우지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매순간 남을 미워하고 닮는다.

우리가 공인하는 능력이란 대개 '내 눈에 물 대기(我田引水)' 식의 능력을 말한다. 자연스런 흐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물고를 넓혀서 내 눈에 많은 물을 대고 그것을 가두어 두는 것을 유능하다고 한다. 나아가서는 그런 일들을 자못 인간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찌구비 없게도 폭력·술

· 중음·전쟁에 대해서조차 명분을 붙여준다.

계속해서 먹기만 할 수는 없다. 무한정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먹었으면 배설해야 하고 먹을 만큼 먹었으면 멈춰야 한다. 계속해서 숨을 들이 쉴 수 믿은 없다. 들이 쉬었으면 내 쉬어야 한다. 흘러드는 물도 무한정 잡아 가둘 수는 없다. 흘러들었으면 내 흘려 버려야 한다. 잡아 가두면 썩거나 터지게 된다. 그것은 순리이다. 조금도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진리이다. 고로 우리의 노력이란 그런 흐름을 타는 것. 그런 흐름에 순응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물 같은 삶을 으뜸으로 여겼다. 龍眼

제1회 독서감상문 공모작 발표

최우수작

명상에 관한 보고서

- 마크 엡스타인의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를 읽고

김경연

제목이 관념적인데 반해 에필로그의 마지막 자귀까지 읽고 책을 덮으며 '불교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하며 재미있는 발상에 무릎을 쳤다. 물론 동양인들이 생각하는 불교와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불교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매우 현실적이며 實證(실증)적인 서양인의 사고에서 나온 법한 <불교에 대한 새 옷>을 한 벌 입힌 격이다. 글쓴이는 동양적인 불교의 은유보다는 서양인의 잣대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의 하나를 증명하고 있다.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는 불교에 접근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명상'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서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 책이다. 역설적이게도 서양인의 눈을 통해서 본 '나'와 '내가 가진 종교'에 나 자신은 한번도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다. 살아오면서 불교는 나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인데도 내 사고를 지배하는 철학이었으며 내가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지배하는 나침반이었다. 그러나 한번도 불교의 근본 원리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어머니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절에 가서 빌면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에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닐까? 서양인 의사가 쓴 불교의 정신분석학은 내가 가진 종교에 대해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다가가기에 권하고 있었다.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다양성이 첫 번째이고 그것을 불교의 (명상)과 어떻게 접목해서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이다. 여기서 명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선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그럼으로 이 글은 <한국적 불교>에 대한 총체적 이론서라기 보다는 현재 서구의 지식인 계층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에 대한 애정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서양인이 생각하고 있는 동양적인 정신세계에 대한 간단 명료한 글쓰기는 주제가 무겁고 어려움에도 문장 자체는 선명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임상경험이 많이 소개되어 다가갈 수 있었다.

글은 유희로부터 시작한다. 재미있었던 건 축생계에 관한 글을 쓰면서 프로이트의 심리학과 중 성(性)에 관한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있었다. 성(性)의 쾌락에

대한 결론은 물론 같다. 성(性)의 쾌락이란 일시적 만족과 그 뒤에 오는 그 큰 만족을 위해 현재의 만족이 빈곤이 되고마는 만족과 빈곤의 되풀이로 결국 영리한 만족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쾌락을 좇는 사람은 축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데 왜 하필 축생계에서 성(性)이 등장하는지 의문이었었고 혹시 이것이 성(性)이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중의 하나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저속한 행위라고 생각하거나 글쓴이가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마우어 짐작했다. 재미있는 행간 읽기였다.

이 글을 읽기 얼마 전에 나는 <생각과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과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그리스 선박을 타고 일주일간의 지중해 여행기간이었다. 지중해의 순결한 태양 아래서 읽는 불경(佛經)은 진지했다. 온통 알몸을 드러내며 누운 여인네들은 해바라기를 하고 나 또한 그들 사이에 묻혀 아방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호산한 유람선 안에는 각국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과 그 인종들이 엮어내는 문화의 차이로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민천에서 내 앞에 앉았던 프랑스인이 매우 불쾌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살기조차 느껴졌다. 그것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라 만천시간 내내 그랬다. 이후, 6일간의 불쾌한 시선 속에서 보내야 했다. 마지막 식사시간이었다. 그 프랑스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내 목에 걸린 만(巾)자 목걸이에 대해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나는 <불교의 심플>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얼굴엔 당황함이 묻어났다. 자신은 유대계라며 나의 만(巾)자 목걸이는 악몽이라고 했다. 바로 2차 대전의 나찌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맛다. 히틀러는 동양의 위대한 힘을 빌려 세계를 지배하려 했고, 그래서 나찌의 심플이 만(巾)자를 거꾸로 써서 만들었다는 일설이 있다'고 답해 주었다. 본의 아니게 며칠 동안 그에게 지옥계를 경험하게 한 미안함으로 내가 읽던 불경(佛經)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는 <불교>에 대해서 표피적이거나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그 프랑스인은 만(巾)자와 나찌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생각했다. 그럼으로 해서 나에게 <폭력>이라는 행동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했다. 이후, 2차 대전의 잔해가 아직도 생생한 이태리에서는 일전에 경험했던 불쾌한 시선을 더 자주 받아야 했고 나는 만(巾)자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물고 답하는 시간을 덤으로 얻을 수 있었다.

나의 경험을 마크 엡스타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까? 그 프랑스인은 억압된 잠재의식이 현실의 어떤 물체와 만났을 때,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이 폭발을 하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괴로움을 있는 방법은 불교의 (명상)이다. 그리고 명상의 방법은 ... 책을 읽고 내가 대신 내려준 답이다. 여기서 '나'는 그 프랑스인이 느끼는 괴로움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스스로 자신이 진정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찾아가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가 공포를 느낀 건 만(巾)

자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연상되는 참혹한 전쟁의 피해다. 이미 그 방법은 불교의 여러 경전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으로 나는 그와 전쟁에 얽지 않은 인연을 맺지 않았나 상상해 보았다. 역시 책읽기의 재미있는 선물이다.

작가 마크 엡스타인은 동양철학(여기서는 불교로 대표되는)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일찍 눈을 떴고, 그 자신도 직접 명상을 함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했다.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명상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이자 또한 자신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결국 '불교가 제시하는 가장 근본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마크 엡스타인의 글은 불교의 근본을 심리치료와 연관하여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스스로 찾아가기를 원하는 중생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내가 만(巾)자 목걸이를 해도 누구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 이는 불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로 내 안에 광활한 대지의 풍요로움이 펼쳐져 있음에도 한발 내디더 걸어보지 않는다. 불교는 바로 여기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꺼안으려는 사람은 다들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 발 비껴서 사람에게서 마크 엡스타인의 글은 한번쯤 되새김질하는 여유를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우리 불교 전반에 모두 필요불가분의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근본으로 다가기려는 마크 엡스타인의 수고에 불자로서의 예를 표한다.

성불(成佛)하소서.

- 최우수상 (상품: 출원옥산가 옥 다기세트) 김경연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 우수상 (상품: 사이버 음향에밀레종) 송소현 - 전북 군산시 나원동
- 가작 (상품: 연꽃전통 다기세트) 박철홍 - 전남 목포시 연산동 · 송영만 - 전북 군산시 금광동
- 장려상 (상품: 성철큰님 기념법대) 이경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동1동 · 김갑숙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조경숙 - 서울시 양천구 목3동 · 권두레 - 서울시 구로구 구3동

이행행사에 관심을 보내주시는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상품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문의: 02)732-1522, 현대불교신문사